

시인의 마을

구름처럼 문장이 되어

스님 령살랑
비람이 얼굴을 스친다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 가 시막이 되고

짧은 일과 코 시어로
익숙한 냄새가 자극한다

달콤함도
고소함도 아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냄새만 가득하다

무심한 듯 다가온
지음+모음=구름처럼 문장이
되어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김컷국 미시듯
자만치 정원급제하고

살랑살랑
비람이 얼굴을 스친다

|| 시(詩)를 탄다 ||

비람이 차다. 그렇지만 나쁜지는
없다. 때론, 뒤집어쓴 빵 모자를
벗어 던져 버리고 싶다. 한창을
견다가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간 너
석이 바람이다.
그 너석을 따라가며 지나온 시

간을 돌아다본다.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다.
그 삶에는 /입술은 바싹바싹/ 타
들어 가 시막이/되어, /짧은 일과
코 시어로/익숙한 냄새가 코를 자극/
하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비록 /달콤함도/고소함도 아니/
도 좋다.
/그냥/아메리카노 냄새만 가득
한/ 공기이면 속하다.
시인의 마을에 찾아온 글쓰기
중독은 아메리카노보다 강력하다.
/무심한 듯 다가온/ 지음+모음=구
름 되어/ 자란을 두드릴 때마다 /
김컷국 미시듯/자만치 정원급제하
/다 보니, 허무함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바람이 차
다. 그렇지만 나쁜지는 없다. 구름
처럼 문장이 되고 싶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단결의 날' 기념하는 우크라이나군 장병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단결의 날'을 기념하는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국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예상한 러시아 침공 일인 18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다.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지도자



부르키나파소 군부 쿠데타 지도자 폴-앙리 신디앙고 디미바(41) 중령이 18일(현지시간) 부르키나파소 수도 외가두구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중 선서하고 있다. 디미바 신임 대통령은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라고 취임 선서를 했다.

사설

제14회 작촌문학상의 의미

지난 2021년 제14회 작촌문학상 수상자에 김경희(75)수필가가 선정됐다. 김경희 수필가는 1985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수필과 비평' 편집인, '소년문학' 주간을 역임했다. 수필집 '동지안의 까치 마음', '정의 침묵', '도공과 작가', '사람과 수필 이야기' 등을 출간했다. 유인실 심사위원은 "작가가 개인의 내적 프라이버시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자기 성찰에서 오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제1회 교현예술상은 신영규(63) 수필가와 박선애(60) 시인에게 돌아갔다. 2001년부터 격년제로 이어지는 작촌문학상은 제1회 전복의 어른상'을 수상한 작촌(鵜村) 조병희(趙炳晷)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됐다. 수상자는 집행부나 임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장르별로 성별을 창작하고 있다. 작품의 우수성은 물론 특히 수상자들의 인품을 평가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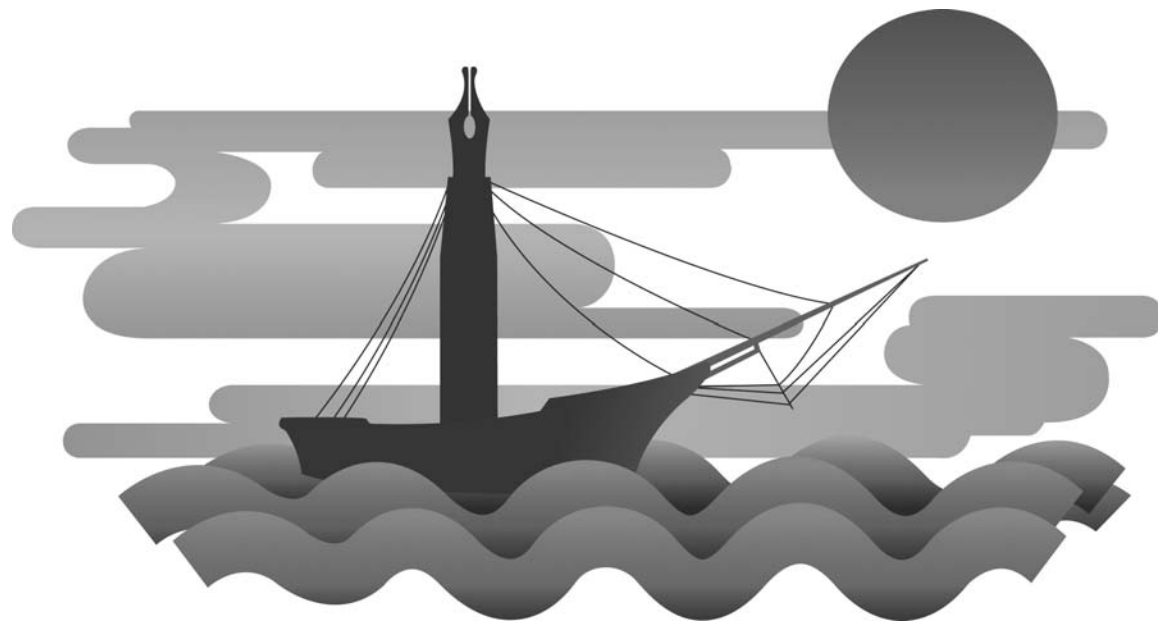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평이다. 실제로 수상자들은 격조 높은 작품일 뿐 아니라 인품까지도 훌륭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수상자들은 현장 문학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문인들은 연행이 일지되는 삶이어야 한다. 특히 평범한 소재를 발굴해 질자탐마의 노력으로 글을 쓰는 절절한 호소력이 배어 있어야 한다. 작촌문학상은 이미 문단에서 인간다운 향기가 나는 문학상으로 칭찬을 받는다. 작촌(鵜村)은 대한민국 명주로 이름을 떨친 '이강주(梨薑酒)' 조정형 회장의 선친인 작촌 조병희 선생의 아호다. 작촌은 시인이자 항토 사학자이며 서예가로서 초서의 대가였다. 문학상을 제정한 것은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일이 라는 데에도 무관하지 않다. 수상자들이 모두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전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의 과제

최근 전주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려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전주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는 탄소산업을 모델로 탄소 섬유 · 중간재 · 부품 · 응용제품까지의 전 단계 탄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효성첨단소재(주), (주)에코카본, (주)KGF 등 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1602억 원을 투자하고 2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밖에 탄소 소재 투자 의향 기업인 비나텍, 라지, 퍼치케이블, 테라엔지니어링, 란스&C, 에니에스, 씨디엘 등 7개사가 협력 기업으로 동참한다. 상생 협약 내용은 △효성의 원부자재 할인 및 안정적 공급, 기술지원, 해외 판로 지원 등을 통한 참여 기업 경쟁력 강화 △정규직 채용, 선진임금체계 도입, 노동법 확대 적용 등 고용안정 △공공근로복지기금조성에 따른 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환경계기물 공동처리 등이다. 전북도는 효성의 자원에 따른 이번 협약으로 탄소 생태계 구축을 앞당길 기회를 맞았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에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핵심 산업인 탄소산업의 밸류 체인을 강화하여 탄소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 노·사·민·정이 연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상생 협약식은 전주형 일자리로 효성의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탄소산업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의 실현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지정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 1번지 위상을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